



舊韓末의 醬類工業史

李 漢 昌*
Lee, Han Chang

1. 序 論

우리 나라에는 조선조 개화기까지 장류공업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 우리 나라의 장류공업은 日人들의 정치적 침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

<표 1> 서울 居住日本人戶口數와 人口수(1885~1907年間)

年度別	戶數	人口		
		男	女	合計
1885年(高宗 22年)	19	71	18	89
1886年(高宗 23年)	34	118	45	163
1887年(高宗 24年)	65	170	75	245
1888年(高宗 25年)	86	230	118	348
1889年(高宗 26年)	130	354	172	527
1890年(高宗 27年)	137	347	175	522
1891年(高宗 28年)	157	435	263	698
1892年(高宗 29年)	169	442	273	715
1893年(高宗 30年)	234	454	325	779
1894年(高宗 31年)	266	510	338	848
1895年(高宗 32年)	500	1,114	725	1,839
1896年(建陽 1年)	479	1,019	730	1,749
1897年(光武 1年)	471	871	717	1,588
1898年(光武 2年)	480	946	788	1,733
1899年(光武 3年)	525	1,117	868	1,985
1900年(光武 4年)	549	1,157	956	2,115
1901年(光武 5年)	639	1,395	1,095	2,490
1902年(光武 6年)	797	1,684	1,350	3,034
1903年(光武 7年)	902	2,074	1,599	3,673
1904年(光武 8年)	1,350	2,978	2,345	5,323
1905年(光武 9年)	1,986	4,160	3,517	7,677
1906年(光武 10年)	3,216	6,447	5,277	11,724
1907年(光武 11年)	3,855	7,082	6,365	13,447
1910年(光武 14年)	50,992	-	-	171,543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이 옳을 것이다.

즉 日人들이 들어와서 장류공장을 세운 목적은 주로 자기네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거주민 숫자의 증가와 더불어 장류산업도 발전해 갔던 것이다.

그 시대의 장류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에 日本人이 거주하기 시작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1880년(高宗 17年, 日本 明治 13年) 日本公使館이 京城(서울)에 개설되기 얼마전 부터 인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은 1905년 11월 을사보호 조약이 체결된 다음 달 부터 서울에 統監部를 설치 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을 수행하게되었는데 이 때는 서울에만도 이미 7,000여 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

서울에 외국사절의 주재(駐在)와 함께 商人이나 一般人들이 거주하면서 외국인의 상업활동도 활발 하여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日本人들의 많은 거주 와 함께 日本人들의 商業도 활발 하였다. 서울은 首都인 때문에 外國人の 商工關係도 다른 지역보다 급속도로 확장되어 갔다.

1887년(고종 24년) 2월에는 서울에 「京城日本人 商業會議所」가 창립되었으며, 1902년까지는 釜山, 仁川, 木浦, 元山 등 5개소에도 설립되었다. 1884년 의 甲申政變으로 인하여 日人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浸透을 피하는 日本人들의 상혼은 집요한 것이었다. 이때 日本公使館이나 領事館의 官吏 및 巡查들은 日本人의 商業保護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했었다. 원래 日本

*食品.農化學技術士, 理博, 時調詩人, 前 同德女大教授.

人的 在韓商業會議所는 日本 本土內에서의 商業會 議所와는 달리 日本人의 商業上의 公機關的인 성격 을 지녔고 商業浸透의 목적으로 육성되어 온 것이 었다. 그리고 日本人關係의 事件은 대소를 막론하

〈표 2〉 서울에서의 日本人 營業種別(1904. 5. 7年度 京城日本人商業會議所年報)

種 別	1904 年未 員數	1905 年未 員數	1907		種 別	1904 年未 員數	1905 年未 員數	1907	
			戶數	人口				戶數	人口
質屋(典當舖)	38	40	61	198	간장 製造	5	6	4	21
旅人宿	14	26	33	128	된장 製造	4	4	-	-
浴湯	8	11	13	68	西洋 織物	1	1	2	7
料理店	36	31	61	127	雜貨	151	249	233	835
屠獸場(業)	3	4	2	9	換運 錢搬	3	4	-	-
賣肉商店	6	6	-	-	運酒 造業	8	22	20	67
飲銃砲	75	148	164	435	賣藥	2	3	-	-
銃貨人	2	2	2	2	力車 製造	7	13	18	50
牛乳搾取	6	7	-	-	力車 製造	1	0	-	-
所力車	2	3	-	-	打蜜 水製	1	4	2	5
有節商(冰商)	4	1	6	21	柑 製	1	1	-	-
冰諸興	22	48	-	-	寫眞 製	4	9	-	-
諸遊妓(業)	1	4	5	10	彫刻 業	1	1	-	-
藝酌古	7	7	4	4	表鐵 業	11	13	11	45
物灸(內)	14	34	18	49	遊藝 師	1	1	-	-
鍛冶職(內)	188	227	-	237	按米 業	7	8	11	32
藥洗銀	131	163	-	148	薪酒 業	1	1	12	34
用交仲	15	29	44	65	魚菓 腐子	9	9	-	-
木請負	7	9	-	-	陶器 商	1	2	7	13
日露大	8	10	22	48	時子 計	1	1	7	25
植可理	6	8	16	52	齒移 科	3	5	13	60
活髮版	5	10	24	66	金銀 美精	3	5	27	32
行煙材	2	3	-	-	電氣 取拔	6	15	28	46
子農下	4	4	-	-	廣告 乘合	6	17	47	111
	1	0	-	-	鐵乘 馬	9	14	22	66
	4	0	-	-	清眼 鏡	51	94	115	326
	28	47	104	364	飲料 水製	9	13	8	35
	11	13	15	45	浦團 商(이)	11	17	27	67
	4	3	5	50	子齒 科	2	5	23	61
	3	5	17	50	金銀 民	1	5	2	4
	4	16	16	41	電氣 美精	1	0	-	-
	18	22	259	938	廣告 取拔	1	1	-	-
	3	3	-	-	鐵乘 乘合	1	2	-	-
	11	13	-	-	清眼 鏡	0	2	14	50
	16	38	11	57	飲料 水製	0	1	-	-
	4	6	13	32	浦團 商(이)	0	2	-	-
	1	3	13	32	子齒 科	0	1	-	-
	10	26	39	80	金銀 民	0	6	4	8
	2	5	15	27	電氣 美精	0	1	2	7
	2	5	9	30	廣告 取拔	0	1	-	-
	1	2	-	-	鐵乘 乘合	0	1	-	-
	1	1	1	3	清眼 鏡	0	1	-	-
	16	24	24	40	飲料 水製	0	1	-	-
	1,644	1,064	1,013	3,364	浦團 商(이)	325	561	659	2,007

자료: 京城日本人商業會議所年報

總計 1904年: 1,869, 1905年: 1,715, 1907年: 戶=1,672, 人口=5,071

고 商業會議所가 담당하여 스스로 日本人을 대표하는 등 日人勢力浸透의 基地로서의 功績을 했었다.

2. 京城의 商工과 醬類工業

서울은 우리 나라의 政經 및 文物의 중심지이니 만큼 在京日本人商業도 급속도로 발전하여 商權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에 居住하는 日本人의 數를 보면 점차로 증가하고 있지만 韓日間에 큰 事件이 있는 뒤면 日本勢力의 작용과 함께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예컨대 1882년의 壬午軍亂後나, 1884년의 甲申政變後나, 1894년 淸日戰爭後나 1905년의 露日戰爭後나

마찬가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2〉는 1904~1907년까지의 日人의 직업별 인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또 당시 日人사회의 구성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고 과반수는 상인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年次的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은 官吏 및 그 家族과 아울러 藝妓, 酌婦 등이며, 규모가 큰 商人들이나 資本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 植民地 產業構造의 발판을 굳히는 事業을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장류공장도 이미 이때에 존재해 있었으며 1904년에는 5人, 1905년에는 6人, 1907년에는 4가구 21명이 간장제조업에 종사했다는 기록(표 2)이 있는 것

〈표 3〉 구한말 서울의 장류공장

공 장 명	設 立 者	設 立 年 月 日	所 在 地	종업원수
高見醬油釀造場	高見 簡	1904年 11月	靑葉町3丁目 25	5~50
大塚醬油釀造場	大塚宗三郎	1906年 11月	시흥군 영등포읍 영등포리(영등포구 영등포동)	
嶋屋醬油釀造場	戶嶋祐次郎	1909年 4月	岡崎町(東子洞)75	5~50

資料 : 서울 統計資料集, 1993.

〈표 4〉 한국으로 수입된 물품과 가격(1906)

	日 本 外 國 外 國 外 國		外 國 外 國		說 明
	數 量	價 格	數 量	價 格	
醬 油	121,315斤	28,665圓	-	-	
蜜 柑	1,557,706斤	76,342圓	-	-	
砂 糖	3,630,350斤	280,608圓	309,907	23,996圓	
淸 酒 樽 入	812,719斤	237,369圓	-	-	
淸 酒 瓶 入	18,605斤	9,908圓	-	-	
麥 酒	357,010리터	389,542圓	1,110리터	475圓	
紡 績 絲	379,271個	185,881圓	-	-	1個에 20玉入
手 市	10,051,469方야루	1,426,327圓	1,070,709方야루	148,447圓	
綿 縲 子 及 미타리안스	3,014方야루	907圓	1,077,353方야루	226,010圓	대부분 英國에서
白 木 綿	140,656段	43,983圓	-	-	
支 那 麻 布	-	-	171,309方야루	50,280圓	支那
羅 紗 及 세루地	32,782方야루	31,451圓	77,269方야루	61,207圓	
아 루 빠 가	1,055方야루	481圓	618,840方야루	206,988圓	
모 스 린	120,216方야루	46,588圓	7,633方야루	2,748圓	
洋 紙	1,930,781斤	178,034圓	71,613斤	8,391圓	
和 紙	121,191斤	44,311圓	-	-	年年減少
葉 煙 草	913,431斤	149,239圓	1,010,354斤	231,783圓	

資料 : 서울通史(1972)

으로 보아 이 무렵 간장공장이 4~6개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 된장제조업도 1904년에 이미 4인이 있었다. 이 무렵 서울에는 약 5,000명 정도의 日本人(표1)이 있었는데 장류제품은 주로 그들에게 공급되었을 것이다.

〈표2〉에서 1907년에 간장제조호수가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4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호를 지녔는지 알 길이 없으나 서울통계자료집에 보면 〈표3〉과 같이 1906년에 설립한 大塚醬油釀造場과 1904년에 설립한 高見醬油釀造場의 2개 공장이 소개되고 있으니 이들은 1907년의 4개 공장中的 일부일 것이다. 그리고 한일합방 前해인 1909년에 한 개 공장이 설립됐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 工場은 대단히 영세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그 당시에는 國內生産의 장류만으로는 全體 日人에게 공급하기에는 不足을 느낀 듯 日本에서 121,315근(28,665圓)의 장류를 수입한 사례를 발견할 수도 있다.(표4)

3. 物價와 醬類값

〈표4〉는 1906년에 日本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여러 물품과 수량 및 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장류의 경우를 보면 日本에서 121,315升(되)을 수입했는데 그 대가는 28,665圓으로 되어있다. 즉 간장 한 되(1.8l)에 23錢 6厘(0.236圓)로 수입하고 있다. 이 금액의 가치를 짐작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물품의 수입단가를 계산해보면 설탕은 0.077圓/600g, 청주는 0.292圓/1.8l, 맥주는 1.91圓/1.8l, 밀감은 0.049圓/600g으로 수입되었다. 간장값은 청주값과 거의 맞먹는 숫자인 것으로 보아 당시는 간장값이 꽤 좋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설탕값이 비교적 싼 편이다.

그에 앞서 1901년의 物價表 〈표 5〉에서 장류의 가격을 보면 간장이 1되(1.8l)에 40~45錢이었고 된장은 1근(0.6kg)에 10錢으로 나타나 있다. 또 이때

의 쌀값은 1되(1.8l)에 26~28錢이었다.

〈표 5〉 장류와 몇 가지 物價(1901年)

品名	數量	價格(圓)	비고
간장	1升(되)	0.45 0.40	攝津尼午崎釀造 印 山口縣柳井釀造甘露醬油
된장	1斤	0.1	
식초	1介	0.35	
맥주	1병	0.3	
白米	1升 [上 白	0.28 0.26	

資料：京城府史(1936)

표에서 간장값은 유독 수입품 가격을 제시해놓고 있다. 서울에 장류공장의 存在가 기록상으로 확인된 것은 1904年(표1)이므로 이때(1901年)는 아직 서울에는 토산품이 없거나 있다해도 그 量이 不足했기 때문에 수입이나 이입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한다.

또 가격면에서 고찰 해 보면 그 당시 쌀값이 0.26~0.28圓/1.8l였으니 간장값은 쌀값의(0.4/0.28≒) 1.4배~(0.45/0.28≒)1.6배이다. 이것을 지금의 시세(1997. 1. 10, 망원마트, 쌀값=1,920원/1.8l, 간장값 1,840원/1.8l)에 의해서 양자를 비교해 보면 간장값은 쌀값의 0.96배가 된다는 계산이니 쌀값에 비교하는 한 지금은 간장값이 비교적 싸다는 이야기가 된다.

4. 釜山의 醬類工業

기록[釜山市史(1989), 釜山市誌(1974)]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먼저 간장공장이 설립된 것은 1886年으로 釜山 新昌洞에 日本人에 의해서 설립된 山本醬油釀造場이란 상호의 공장이다. 그러나 이 공장의 설립자 이름 등 자세한 것은 일체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 후 계속해서 부산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설립되어 韓日합방(1910年) 때까지는 이미 17개의 공장(표6)이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표 6〉 韓日合邦前 釜山醬油工場(1909)

工場名	設立年度	所在地
山本 醬油 釀造場	1886년	新昌洞
五島 醬油 釀造場	1889년	·
福田 醬油 釀造場	1889년	·
中村 醬油 釀造場	1891년	寶水洞
吉井 醬油 釀造場	1892년	南浦洞
木寺 醬油 釀造場	1892년	昌善洞
松前 醬油 釀造場	1896년	新昌洞
柏木 醬油 釀造場	1905년 4월	影 島
相 醬油 釀造場	1905년	·
依 醬油 釀造場	1906년	南浦洞
國松 醬油 釀造場	1906년	寶水洞
大久保 醬油 釀造場	1906년 2월	昌善洞
山根 醬油 釀造場	1906년 6월	富平洞
松岡 醬油 釀造場	1906년 9월	草梁洞
山內 醬油 釀造場	1907년 5월	土城洞
河野 醬油 釀造場	1907년 7월	草梁洞
水野 醬油 釀造場	不明	
計 17 개 공 장		

資料：釜山市誌

부산이 개항된 것은 1876년(고종13년)이었으므로 우리 나라의 장류공업은 그로부터 10年 후에 시작된 것이되는 셈이다.

개항으로부터 한일합방이 될 때까지의 사이에 설립된 부산 근대공업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면 1910年(한일합방)까지의 부산근대공업의 구조적 특징은 농산물가공업(간장·술·정미·담배 등)이 총 업체수의 56%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장유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체수의 21.8%로 단연 수위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이 淸酒양조를 위주로 한 酒造業(17.8%)으로 양자를 합하면 39.6%로 그 시대의 부산의 공업은 장유양조와 술양조의 두 업종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또 그 무렵 全國의 제조업 상황과 부산의 제조업 상황을 〈표 8〉에서 비교해 보면 정미업은 全國의 20개 업체중 부산에서만 19개를 점하였으니 부산은 全國의 95.0%의 점유비로 단연 주도적이다. 그러나

〈표 7〉 구한말의 釜山工業의 업종별 통계(1910年)

업종	업체수	비율
醬油釀造	17개	21.8%
釀酒造	14	17.8
精米	10	12.8
鐵工業	4	5.1
煙草製造	3	3.8
印刷業	3	3.8
미누製造	3	3.8
동조림製造	3	3.8
和船製造修理	1	1.3
製鹽	2	2.6
電氣	2	2.6
製粉	2	2.6
벽돌製造	2	2.6
소다製造	1	1.3
肥料製造	1	1.3
製冰	1	1.3
製船	1	1.3
水飴製造	1	1.3
足袋·모자製造	1	1.3
菓子製造	1	1.3
사이다·蜜柑水製造	1	1.3
染色	1	1.3
떡속고물製造	1	1.3
製紙	1	1.3
양초제조	1	1.3
計	78	100.0

資料：釜山경제사

이 숫자에는 통계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의 업종에 있어서도 부산의 제조업은 대부분이 1~3位の 범위에 머물러 그 시대의 한국경제에 있어서 부산은 절대적인 비중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은 지리적 조건으로 仁川이나 馬山보다도 일찍 日人들의 진출 창구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장유업의 진출도 타 지역에 비해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부산이 우리 나라 최초의 개항지였다는 점과 당시 부산은 京城(서울)과 더불어 人口 5만을 넘는 국내 최초의 대소비지로서

〈표 8〉 부산 제조업의 전국 비중(1909년말 현재)

(단위 : 圓, 個)

		精米業	清酒 및 醬油	煉瓦製造業	鐵工業	其他	合計
공장수	全國(A)	32	20	13	11	35	111
	釜山(B)	8	19	2	3	16	48
	$\frac{B}{A}$ (%)	25.0	95.0	15.4	27.3	45.7	43.2
	비고	1位	1位	4位	2位	1位	1位
생산액	全國(A)	6,204,370	247,200	158,700	107,800	2,062,105	8,780,175
	釜山(B)	3,279,170	232,200	32,000	28,000	570,506	4,141,876
	$\frac{B}{A}$ (%)	52.9	93.9	20.2	26.0	27.7	47.2
	비고	1位	1位	3位	2位	1位	1位

資料 : 釜山경제사

〈표 9〉 부산의 공장 고용현황(1910년 12월말 현재)

(단위 : 名, 圓)

	일본인	한인	합계	평균자본 규모	평균고용 규모	평균한인 고용수
醬油 釀造業	27	12	39	10,748	4	1
精米業	15	92	107	48,625	13	12
清酒 酒造業	49	3	52	53,125	7	0
鐵工 業	43	16	59	4,333	20	5
煉瓦 製造業	63	117	180	13,500	90	59
製粉 業	2	7	9	18,500	5	4
통조림 제조업	7	0	7	6,000	4	0
製鹽 業	7	10	17	60,000	17	10
煙草 製造業	70	270	340	37,167	113	90
電氣 業	13	1	14	100,000	14	1
其他	36	10	46	4,457	7	1
合計	332	538	870	27,582	18	11

資料 : 釜山경제사

그 자체의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장유공업과 더불어 기타 제조업의 선도적 발전을 이루게 한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그 당시 부산의 장유공업은 공장수로는 대단한 것이었으나 내면적으로는 대부분이 영세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 9〉에서 고용상태와 자본금의 실상을 보면 장유업체의 자본금 평균은 10,748圓으로 유사업종인 청주양조업의 약 1/5에 불과했고 평균 고용에 있어서도 日人 4人, 韓人 1人, 計 5人으로서 그 영세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또 장유업의 임금수준(〈표 10〉)은 月平均 15圓(급식조건)으로 酒造業 26圓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편이다. 이것은 酒造業에서 日人을 비교적 많이 고용하고 있으므로 급여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한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담배제조업에 있어서는 日當 20전으로 대단히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의 동일 직종이라 할지라도 한인 노동자는 日人의 절반수준의 급여였다고 하며 이는 산업자본에 의한 식민지 저임금 수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의 장유공장수는 러일전쟁(1904년) 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11〉에서 보면 1909년 12月末 현재 부산의 총제조업체수는 48개로 나타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장유제조업이 11

〈표 10〉 부산의 주요업종별 임금비교(1909년도 평균)

업종	직종	급여방식	급여
精米業	한인인부	日給	60錢
	한인火夫	·	50錢
煉瓦製造業	벽돌제조공	月給	15圓50錢(日給 50錢에 해당)
煙草製造業	연초제조여공	日給	20錢
酒造業	주조직공	月給	26圓(給食條件)
醬油釀造業	장유양조직	·	15圓(給食條件)

資料：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年報

〈표 11〉 부산의 제조업 공장 현황(1909년)

(단위：圓, 個, %)

	자본금		공장수		생산액	
	금액	구성비	공장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醬油酒造業	118,226	8.9	11	22.9	65,800	1.6
精米業	389,000	29.4	8	16.7	3,279,170	79.2
淸酒酒造業	425,000	32.1	8	16.7	166,400	4.0
煉瓦製造業	27,000	2.0	2	4.2	32,000	0.8
鐵工業業	13,000	1.0	3	6.3	28,000	0.7
製粉業	37,000	2.8	2	4.2	10,000	0.2
통조림제조업	12,000	0.9	2	4.2	15,000	0.4
製鹽業	60,000	4.5	1	2.1	110,000	2.7
煙草製造業	111,500	8.4	3	6.3	345,866	8.4
電氣業	100,000	7.6	1	2.1	38,000	0.9
其他	31,000	2.4	7	14.3	51,640	1.1
合計	1,323,926	100.0	48	100.0	4,141,876	100.0

資料：第4次朝鮮總督府 統計年鑑

〈표 12〉 통감부설치당시 부산의 공업(1905. 11월)

(단위：圓, %)

	자본금		공장수		1909년말 전체공장대비(%)	
	금액	구성비	공장수	구성비	자본금	공장수
醬油酒造業	83,026	10.2	6	20.7	70.2	54.5
精米業	319,000	39.0	4	24.1	82.0	87.5
淸酒酒造業	245,000	30.0	2	13.8	57.6	50.0
鐵工業業	11,000	1.3	2	6.9	84.6	66.7
製粉業	37,000	4.5	1	6.9	100.0	100.0
통조림제조업	2,000	0.2	3	3.4	16.7	50.0
煙草製造業	111,500	13.6	4	10.3	100.0	100.0
其他	9,000	1.2		13.9	4.1	24.2
合計	817,526	100.0	29	100.0	61.8	60.4

資料：第4次朝鮮總督府 統計年報

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청주제조업과 정미업의 순
으로 되어있어서 수적으로는 장유업이 부산의 가장

중요한 산업의 위치에 있다.

그러나 공장수가 전체의 22.9%이고 자본금 구성

비가 8.9인 것에 比해서 생산액은 전체의 8.9%, 1.6%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투자액에 비해서 비교적 生産性이 낮은 업종임을 알 수 있다.

〈표 12〉는 러일전쟁(1904)이후에 新生한 부산의 제조업체들이다.

〈표 12〉에서 보면 통감부설치당시 장유업(6개)은 정미업(7개) 다음으로 많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부산의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표 12〉에서 보면 부산 전체 제조업체수는 1909년대 60.4%(총자본금은 61.8%)가 이 시기에 출현했던 사실만으로도 러일전쟁 승리로 일본의 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했는가를 엿 볼 수 있는 점이다.

이 시기의 부산의 공업자본은 日本內에서 성장한 日本 독점자본의 진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항 초기부터 이주하여 약탈적인 원시적 축적을 통해 형성된 소규모 자본들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여러 사실로 보아 이 시기의 부산의 공업 자본이 갖는 일반적 성격을 규정한다면 그것은 半植民性으로 집약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다.

5. 仁川의 醬類工業

仁川이 개항된 것은 1883年이다. 굴욕적인 江華

島조약(1876) 직후부터 日人들은 城倉浦를 근거로 삼아 상업활동을 하는 등 仁川개항에서 국제적으로 기선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淸日전쟁(1894)과 러일전쟁(1904)의 승리의 여세로 중국상인이나 구라과 상인들을 완전히 제압하기에 이르렀다.

仁川의 개항과 더불어 日人들의 유입은 더 활발해져서 1885년에는 562명, 1910년에는 14,000명을 넘어 인천인구의 약 半을 차지했다.(仁川市史)

이와 같은 일본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생활 필수품의 조달 문제와도 연결되고 따라서 장유산업의 발전을 초래 하기도 했다.

1911년 현재 한국내의 공장수는 270개 였다. 朝鮮産業誌(山口淸, 1910)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중 日人の 것이 183개 였고 총자본금도 9,021만원이며 평균자본금은 5만원이었다. 日人の 공장중에서 인천에 설립된 것중 가장 큰 것은 자본금 20만원의 日本 醬油製造會社(표13)였다.

그러나 장유업에 관한 한 그보다 먼저 1897년에 日本 상인 기시모토(岸本豊多之進)가 간장과 된장을 만들어 팔았으니 이것이 인천에서의 장유공업의 효시가 된 셈이고 부산에 비하면 11년이나 늦게 시작된 것이었다. 그후 다나카(田中龍吉), 구라시게(倉重源太郎) 등이 역시 간장, 된장공장을 차렸다. 1906년에 松林洞에 세워진 대규모의 간장 공장은 후일에 野田醬油仁川工場이 되었다.

〈표 13〉 舊韓末 仁川의 醬油工場(1910)

(단위 : 만원)

工場名	設立者	자본금	設立年度	비고
-	岸本豊多之進	-	1897	간장
-	田中龍吉	-	-	간장, 된장
-	倉重源太郎	-	-	간장, 된장
日本 醬油株式會社	-	20	1906	간장

資料 : 朝鮮産業誌(1910), 山口 淸

仁川내에는 예로부터 콩, 밀 등이 경기도, 황해도 등지로부터 集散되었고 중국 소금도 수입되었으며 仁川에서도 천일염이 생산 되었으므로 장유공업이

立地하기에 좋았던 곳이다. 따라서 장유의 품질도 우수하여 그 제품은 한국 내에서의 소비는 물론이고 일본이나 만주까지도 수출 되었는데 대부분

(40%)은 경기도에서 소비되고 기타 지역의 소비 (51%)를 뺀 것 中 6%는 日本으로 3%는 만주로 수출되었다.(朝鮮産業誌)

6. 結 言

以上에서 舊韓末(1910年 까지)의 한국 내에 있어서의 醬類산업을 대략 살펴보았다. 이 원고를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속시원한 資料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런 글을 써

야 할 것이라는 것을 평소에 생각했었던 것을 결국은 필자가 스스로 떠맡게 된 셈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의지와는 달리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을 느낀다.

다만 다음에 누군가가 이 원고를 더욱 보강해서 완벽한 것이 될 수 있는 초석의 구실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필자로서는 그 이상의 바램은 없고 영광일 따름이다.

(原稿接受日 1996. 12. 19)